

여수엑스포와 동행...‘글로벌 광주은행’으로

엑스포 출장소 개설 매일 외국인 50명 환전

250여 입주업체·국제관 50여개국 금융관리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한 달동안 외국인 환전과 송금 등을 통해 엑스포 활성화와 글로벌 은행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여수엑스포 공식 후원은행인 광주은행은 10일 엑스포 내 2곳의 출장소와 여수공항환전소에서 하루 평균 50여명의 외국인에게 5만달러의 환전과 송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금융업무 지원과 자금관리▲50여개 참가국 및 외국업체 거래 ▲250여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서비스(자금관리, 연장 영업, 약간금고 지원, 출수납, 잔돈 교환)▲현장 종사자 급여 계좌

개설 ▲하루 평균 1억6000만원의 입장권 판매대금과 출장소 및 관리를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건물 내 1곳,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국제관 인근 1곳의 출장소에 각각 3명과 7명의 직원을 파견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외국인과 엑스포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광주은행은 엑스포 관련 총 15대의 글로벌 ATM기를 개발해 박람회장 내 8대, 호텔·공항·터미널 등에 7대를 설치해 편의를 도모했으며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전 7시부터 24



10일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광주은행 출장소를 찾은 외국인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차동민 광주은행 여수엑스포 출장소장은 “출장소 직원들은 매일 3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여수엑스포 종사자들과 외국인들의 금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광주은행은 지난 5월 14일

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3개월간 환전과 국외송금을 하는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환전, 송금, 여행자 수표 구매, 외화수표 매입 외국 고객에게 통화와 금액에 따라 최고 60% 까지 환율을 우대해 주고 있다. 환전 고객이 여수엑스포 관람권이나 관람

인증장을 제시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80% 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화 500달러 이상 거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 파격적 환율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엑스포 관련 상품도 내놨다. ‘KJB 여니·수니 저금’은 여수엑스포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에 가입하면 0.2%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한편 광주은행은 5억원 상당(1만 6000여매)의 여수엑스포박람회 입장권을 구입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전 영업점과 ARS 전용 판매창구를 이용해 판매를 돌려줄 계획이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에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광주·전남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는 엑스포 행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글로벌 은행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카드사 연체 늘고 순의 줄었다

체크카드 실적은 23%↑

올해 1분기 들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순익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내놓은 ‘2012년 1분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3월 말 전업카드사(KB국민카드 포함)의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2.09%로 전년 말(1.91%)에 비해 0.1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1.05%로 전년 말(0.96%)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오른 2.91%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채권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올해 들어 뛰어난 경기둔화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업카드사(KB국민카드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3408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4644억원)보다 1256억원(26.9%)이나 감소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카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1323억원) 늘어나는데 그

친 반면에 카드비용은 10.1%(2235억원)나 늘었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연체율을 상승과 그에 따른 수익 증가세로, 대손비용 증가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매매이익(4394억원)을 포함하면 1분기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78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3%나 늘어난다. 그러나 주식매매이익은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올해 3월말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6.2%로 대체로 양호했다.

또 전체 카드사의 자산은 76조8000억원으로 전년말(79조7000억원)에 비해 3.6%(2조900억원) 감소했다.

연초에는 지출을 줄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판매자산이 줄었고, 금융감독당국의 외형확대 억제 유도로 카드대출자산도 줄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수는 9325만장으로 전년 말에 비해 351만장(3.9%) 늘었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나 불었다.

<연합뉴스>



종이로 만든 ‘트랜스포머’

지난 9일 (주)광주신세계가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기념해 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진행한 어린이 아트클래스에서 어린이들이 ‘페이퍼 트랜스 포머’ 만들기를 하고 있다. 백화점은 1층 갤러리에서 ‘버릴 것 하나 없는’ 전시를 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은행 6곳으로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

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기초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자사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1800~1900선 등락 기회로 활용 산업재·소재업종 초과 수익 기대

바닥을 확인한 후에도 제한된 주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1780pt에서 강한 지지력이 나타나며 1차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피는 또 다시 1850pt의 저항선에 막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축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이제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글로벌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적 공조를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하는 주된 요인이다.

지난주 중국은 유럽사태에 따른 자국 내 경기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0.25%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유럽사태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8%대의 경제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가도 예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미국 베냉키 연준의장도 필요할 경우 경기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에 맞춰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함께 글로벌 정책공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끈연화되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선진국 중심의 정책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즉, 중국의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더불어 ECB의 3차 LTRO 및 SMP(국제채),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과 QE3 등을 통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주가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수 바닥확인 과정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폭과 대비 산업재·소재업종은 특히, 주식시장의 안도랠리 구간에서 가격매력이 부각되며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대내 불확실성과 내부 산업구조 재편의 성장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확장스토리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재 산업이다.